제주 해저터널 뚫리면 전남관광 시대 '활짝'

제주~전남~서울 새 관광축 구축
무안공항도 '동남아 중심공항' 성장

전남~제주 해저고속철이 뚫리면 '남해안관광'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26분에 주파할 수 있고, 광주~제주는 1시간, 목포~제주는 40분, 대구~제주까지는 2시30분에 닿을 수 있다. 전남지역이 제주와 연계된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는 셈이다.

또 무안공항 활성화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서울역~무안공항~제주공항 등이 KTX로 연결되는 선진 교통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무안공항, 동남아 대표 공항으로=교통개발연구원은 전남~제주 해저고속철이 개통되면 항공기 이용자의 78%가 이 철도를 이용하고, 이용객은 완공연도인 2026년 1494만명, 2013년 1753만명, 2036년 2000만명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무안공항은 광주, 전남·북, 충청권 남부지역의 거점공항뿐 아니라 동남아의 중심 국제공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목포~제주를 40분 만에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공항의 넘치는 수요를 무안공항이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선도 더욱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인천국제공항보다 무안공항이 1시간가량 빠르고, 해저터널로 제주도 방문도 쉬워진다면 무안공항의 수요는 더욱 늘 수 밖에 없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원장은 "세계 해저터널 시장 규모는 최근 발주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크다"면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은 인류 건축사를 새로 쓰고, 한국이 세계 해저터널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제주 '남해안 관광시대' 주도=무안공항은 중국 상해(1921만명), 천진(1228만명), 대련(565만명), 일본 오사카(1134만명), 후쿠오카(145만명) 등 비행거리 2시간 이내 18개 도시(인구 1억명)와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 전남은 이들 도시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관광 산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하지만 전남~제주 해저고속철이 개통되면 무안공항이 활성화돼 이들 도시와의 교류가 더욱 늘고, 제주와 전남이 연계된 '남해안 관광시대'가 빛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의 외국인 관광은 대부분 서울과 제주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지난 20년간 이들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 홍보를 했고,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도 서울과 제주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남~제주 해저고속철은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전남지역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유현호 관광정책 담당은 "전남의 관광자원만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전남의 빼어난 섬 자원과 해양레포츠 등을 육성해 제주의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남해안 관광'을 준비한다면 전남이 국내 대표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대교 개통 서남권 발전의 초석이 될 목포대교(북항~고하도 4.13km)가 지난 29일 개통됐다. 박준영 전남지사, 박지원·이낙연·주영순 국회의원, 정종득 목포시장, 구자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철현 광주지방검찰청장 등이 개통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용역 발표 미루는 이유?

인천~중국·부산~일본 해저터널 대선공약 나올까
국토부, 정치권 눈치보기

"연말까지 공개 안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예산 7억5000여만원들 들여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지난해 11월 완료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용역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대권 후보들이 인천~중국이나 부산~일본 해저터널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경우에 따라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타당성 결과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 호남고속철도(KTX) 광주~목포 노선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가 "전남~제주간 해저고속철 건설을 위해 장기적으로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남~제주간 해저고속철의 건설과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TX의 무안공항 경유를 먼저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번 타당성 조사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공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보길도~제주 73km 바다밑 연결
英~佛 도버터널 보다 긴 세계최장

전남~제주 총연장 167㎞

총연장 167㎞의 전남~제주 해저고속철은 목포에서 해남까지 66㎞는 지상구간, 해남에서 보길도까지 28㎞는 교량구간, 보길도에서 제주까지 73㎞는 해저터널을 뚫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비는 지상구간 2조8000억원, 해상교량 3조원, 해저터널 8조8000억원 등 모두 14조6000억원이 투입되며, 타당성 조사 기간을 포함해 총 1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해저 73㎞ 구간에 철도를 놔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해저고속철을 건설하려면 예산은 지난 2008년에 비해 크게 늘어, 현재에는 20조원에 달하고 공사 기간도 20년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해상 주요구간 연결사례

국명	터널명	연장	사업비	사업기간
일본	세이칸해저터널	53.9㎞ (해저 23)	7조원	'64~'88
영국	영불해협 터널	50.5㎞ (해저 38)	15조원	'88~'94
미국	체사픽베이도로	36.8㎞ (해저 1.6)	4조원	'60~'64
일본	동경만횡단도로	15.1㎞ (해저 4.4)	14조원	'87~'97
스위스	뢰치베르코터널	34.6㎞ (육상터널)	3조원	'99~'07
중국	상해 동해대교	32.0㎞ (해상교량)	1조원	'02~'06

하지만 4대강 사업에 현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이 22조원이었던 점으로 미뤄, 차기 정부가 대표 국책 사업으로 해저고속철을 추진한다면 예산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충분히 국내 기술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저터널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38㎞)과 일본 본토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세이칸터널(23.3㎞) 등이다.

국내에는 거제~가덕도를 잇는 거가대로 중 3.7㎞ 구간이 해저터널이다. 이 해저터널은 수심 48m에 설치된 세계 최초의 침매(沈埋)터널이다. 침매공법이란 육상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설치지점으로 운반해 가라앉힌 뒤, 구조물을 서로 접합시켜 터널을 완성해가는 방법을 말한다.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00년 빈도의 파랑조건, 지진하중, 난파선박에 의한 충돌 조건 등을 설계에 반영해 침매공법으로 시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난관도 많다. 해저 터널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긴 73㎞에 달하고, 수심도 최고 120m인 점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구조물을 단순히 바다 속에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구조물 투하 후 흙으로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태풍과 지진 등에도 안전하다"면서 "이번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 기술적인 문제 등도 충분히 논의된 점으로 미뤄, 기술적인 문제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국회의원들 "국비확보 공조"
정책협의회, 협력 약속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지역 의원들은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내년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조체제를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병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강기정·김동철·박혜자·임내현·이용섭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내년도 국비확보의 분수령이 될 기획재정부 심의를 앞두고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휴일임에도 예산확보 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강운태 시장은 "정부의 균형재정 회복과 사회복지 재정투자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지원 축소 등으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산된다"며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도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확보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국회 개원 후 상임위가 배정되면 해당 상임위별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光日만평 - 김종두

아마추어 不通정부?!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한국명산 16좌를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백화점 및 대리점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millet.co.kr참조)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주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관 : Mtour / 후원 : 광주일보사

세번째 산행 7월 19일(목) / 변산반도 - 능가산 (사자동주차장 - 봉래구곡 - 직소폭포 - 재백이고개 - 관음봉삼거리 - 내소사 - 주차장) *일정 및 등산코스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산행은 8월 24일(금) 민주주산입니다

참가 신청가능 매장

백화점 롯데광주점 062-221-1686 현대광주점 062-510-7738 아울렛 롯데아울렛광주수완점 062-616-2221 익산팔봉아울렛점 063-838-9293 밀레광주아울렛점 062-385-5555 NC순천 061-726-5417 직영점 광주직영점 062-266-8848 대리점 밀레광주용봉점 062-529-6200 밀레광주첨단점 062-973-7775 밀레광주진월점 062-674-5888 밀레광주무등산점 062-225-2121 밀레광양점 061-793-2744 밀레광양칠성점 061-761-7524 밀레목포점 061-282-8523 밀레순천점 061-745-3068 밀레여수점 061-666-1921 밀레여천점 061-691-6565 밀레순천중앙점 061-752-3380 밀레군산수송점 063-445-4747 밀레군산영화동점 063-446-6828 밀레김제점 063-544-7651 밀레남원점 063-626-7889 밀레전주송천점 063-276-3031 밀레전주중앙점 063-225-0789 밀레전주중화산점 063-229-7676 밀레전주효자점 063-272-3668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고객문의 02)306-7033 •대리점개설문의 02)3153-3203